

종합·해설

한나라당 16개 시도 정책협의회

광주시 U대회·문화전당 예산 증액

전남도 한중산단·F1 대회 지원 요구

지방 자원 확보·교육감 직선제 개선 등도 촉구

광주시는 8일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 산업용 레이저 핵심부품 및 모듈 국산화 등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 예산 지원을 여당인 한나라당에 건의했다.

전남도도 이날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 호남고속철 무안국제공항 경유,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김윤석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 이 같이 요구했다.

◇광주시=광주시는 현재 추가 및 신규 반영 요구사업으로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와 관련, 내년도 필요 예산 152억원 중 40억원 ▲산업용 레이저 핵심부품 등을 위한 장비구축 및 연구개발비 60억원 ▲나노 융합기술 상용화 플랫폼 활용을 위한 예산 17억원 ▲국립광주도서관 설계 용역 및 부지매입비 600억원 ▲를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기본 실시설계용역비 20억원 ▲광주 R&D특구 지정 관련 예산 77억원 ▲공예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억원 ▲문화상품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억원 등을 국비

로 지원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광주시는 또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과 관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산 700억원(정부는 200억원만 반영) ▲가전로봇 특화산업 육성사업비 100억원(정부는 28억원 반영) ▲CGI(컴퓨터 형성 이미지) 센터 건립 예산 100억원(정부는 70억원 반영) ▲진곡산단 진입도로 건설비 400억원 등을 전액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구체적 예산 지원에 대한 요구보다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부탁했다. 우선 전남도는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과 관련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와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사업 참여 ▲미래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국책사업으로 선정 ▲신안에 풍력에너지 연구센터 건립 ▲F1(포틀러원) 대회 경주장 건설비 중 880억원 국비 반영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관련 예산 전액 조기 지원 등을 각각 건의했다.

전남도는 또 정부의 정책과 관련,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 ▲쌀 수급 안정대책 현실화 지원 ▲영산강 살리기 사업 수질개선사업비 지원 확대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을 요청했다.

◇기타 지방 대책=이날 협의회에서 타시도의 단체장들은 지방 독립재원 확보와 교육감 직선제 개선,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등에 대해서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집중돼 다른 SOC 사업 예산이 깎이는 것 아니냐”고 말했으며 안상수 인천시장은 “정부의 조기 대응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종 플루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면서도 “그러나 대규모 행사를 무조건 자체 하게 하면 지방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밖에 “교육감 직선제가 낳은 폐단에 대해 당이 개산안을 마련해 달라”(하남시 부산시장), “차량 등록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수 축소 대책이 필요하다”(박명우 울산시장),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록제를 도입하자”(김태호 경남지사) 등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기획재정부 측은 4대강 사업에 따른 SOC 예산 축소에 대해 “2009년도 20조6천억원이었던 SOC 예산규모보다 2010년의 규모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박람회, 관광활성화 업무협약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동석, 이하 조직위)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남해안 5개 광역자치체 및 관광분야 6개 유관기관과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남해안 관광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소상공인 600억원 추가 특례보증

추석 앞두고 재래시장 상인·영세자영업자 지원 나서

광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 상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600억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600억원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광주신용보증재단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된 3개 ‘특례보증특별지원반’을 운영, 현장 지원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특례보증특별지원반은 지원내용과 신청서 작성, 처리 절차 등을 현장에서 처리해주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연초 특례보증 1천

700억원 지원 계획을 추진, 8월말 현재 이미 1천675억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가동률이 연초 61.0%에서 7월말 69.1%로 8.1%p 상승하는 등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실물경기가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특례보증 확대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한편, 하반기 지역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저신용 소상공인, 재래시장 상인, 음식점 및 구멍가게, 미등 록자영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증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 국가경쟁력 세계 19위 작년보다 6단계 추락

세계경제포럼 평가

세계경제포럼(WEF)이 우리나라에 대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를 작년보다 6계단 낮은 세계 19위로 평가했다.

상당수 항목에서 순위가 하락했으며 노사협력 등은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는 이런 200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33개국 가운데 19위로, 2007년(11위)을 정점으로 2008년(13위)에 이어 2년째 순위가 낮아졌지만 2006년(23위)보다는 높았다. 앞서 국제

경영개발원(IMD) 조사에서는 작년 31위에서 올해 27위로 오히려 순위가 오른 바 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2위에서 1위로 올라선 반면 미국은 금융위기 여파로 2위로 밀려났다. 이어 싱가포르(작년 5→올해 3위), 스웨덴(4→4위), 덴마크(3→5), 핀란드(6→6), 독일(7→7), 일본(9→8), 캐나다(10→9), 네덜란드(8→10) 등이었다. 홍콩(11→11)과 대만(17→12)이 뒤를 이었고 중국(30→29)은 30위 안에 들었다.

하위권에는 노동시장 관련 항목이 대거 포함됐다. 노사간 협력(95→131)이 꼴지에서 세번째인 것을

비롯, 고용·해고관행(45→108), 해고비용(108→109), 고용 경직성(65→92),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80→89) 등도 하위권을 이뤘다.

아울러 정부규제 부담(24→90위), 정책변화에 대한 인지도(44→100위) 등은 1년 새 60계단 안락이 나 하락했고, 은행 건전성(73→90), 은행대출 용이성(26→80), 결핵 발병률(83→83), 말라리아 발병률(72→80) 등의 성적도 나뒀다.

이번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지난 2~5월에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 1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다 경제 통계를 각각 7:3 비율로 반영해 산출해냈다. <연합뉴스>

헌재, 미디어법 내일 공개변론

민주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송법 등 4개 법안

다음달 시행될 예정인 개정 방송법의 명운을 가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10일 열린다.

8일 헌재에 따르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 대상으로 삼은 법안은 지난 7월22일 여당이 강행처리한 방송법,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3가지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등 모두 4개다.

우선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방송법은 첫 표결 시도 때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되자 국회부의장이 즉시 재투표에 부처 가결시킨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느냐가 중요 쟁점이다.

야당 의원들은 미리 낸 서면 의견서에서 “방송법 표결 때 과반수인 148명에 못 미친 145명만 표결에 참여한 채 투표가 끝났으므로 방송법 수정안은 부결된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에 다시 발의되지 못해 재차 표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4가지 심판대상 법안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또 하나의 중요 쟁점은 표결 때 대리투표 행위가 있었는지, 만약 그랬다면 대리투표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야당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의 대리투표가 있었는데도 부의장은 각 법안의 가결을 선포했다”며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의 및 표결권을 행사하므로 표결권은 위임 또는 대리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7월23일 방송법 등 4개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헌재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공개변론을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연합뉴스

옛 전남도청 별관 실측

문화도시추진단 22~25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오는 22일 철거 논란을 빚고 있는 옛 전남도청 별관에 대한 실측 작업에 착수한다.

옛 도청 별관 실측작업은 22~25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추진단은 실측결과를 토대로 건물의 연혁과 배치현황 등에 대한 설계도면을 작성한다. 추진단은 현재 도청별관의 건물 설계도 등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작업에 착수했다.

추진단은 지난 3월 별관에 대한 실측조사를 시도했으나 별관 점거농성 중인 5월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연기해 왔다.

추진단 관계자는 “실측조사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건물에 대한 현황 실측을 통해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며 “정부가 이달 중으로 발표할 별관 철거 논란 최종 입장과는 별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가장 중요한 것은 '5분'을 사는 것
www.nancomifon.co.kr

활동의 시간 5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5분의 기적'

당신이,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심장마비 때, 문자 발신 후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하게 되면 생존률이 90%이상!

심장마비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방법

HeartPlus 입니다.

나눔은 '마음'입니다!
희생과 봉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꼭 있습니다.

구입/문의 **1577-8515**

nanAm 나눔테크